

광주시 2020 정부혁신평가 최고 등급

광주형 일자리·AI·그린뉴딜 혁신적 리더십으로 4차산업 선도 시민 중심 시정 운영도 호평

광주시가 빠른 꺾는 고강도 혁신 행정을 통해 전국 최우수 혁신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우수)등급’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혁신-국민제갈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중심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 등이 각 지표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혁신성과를 종합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와 포상이 돌아간다.

광주시는 올 초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시민 편익과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혁신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정책을 보완·확장하는 혁신 등을 혁신 방향으로 설정하고,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민·관혁신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시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와 광주시민총회 등을 운영해 전국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또 주민 주도 속의 형식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 ‘장륙습지 국가1호 도심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은 시민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분야에서 빅데이터기반 119안전지도, 다가치그린모바일앱, 위기가구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등 시민편익을 높이고 업무 자동화(RPA), 의정자료공유시스템 등 내부행정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시민서비스’ 중심 조직을 구축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

역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선정, 광주형 인공지능-그린뉴딜로 2045년 에너지자립률 100% 달성, 인공지능생태계 조성 본격화 등이다.

코로나19대응 등 복지·보건 분야에서 광주, 대구, 전남 등 지역 간 병상나눔, 코로나19심리상담 긴급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 청년드림, 청년임대주택, 입원아동돌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등 청년·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호응도 이끌어 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 광주혁신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정부혁신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한 혁신성과를 받은 것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시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 역경 속 ‘안전 도시 광주’ 기틀 다졌다

재난안전 정부평가 3년 연속 우수 코로나·호우 선제대응 좋은 점수

광주시는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보건재난 저감 활동 등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재난안전 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와 생활안전분야 등이 개선돼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발생한 지난 1월 말부터 민간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집단감염병원에 대한 전국최초 코호트 격리, 선제대응을 통한 신천지발 감염 확산 차단 등을 통해 K-방역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 8월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주택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하고,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해 복구와 광산구 전체, 서구 유덕동 등 6개 동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도록 해 총 복구비 682억원을 확보했다.

안전 산업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신산업 육성을 민선 7기 안전분야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2020년 조직개편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국비사업 유치, 신기술 공모전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시를 이룰 통해 5G 디지털트윈 기반 차세대 건물안전관리시스템 실증사업 등 4개 분야에서 국비 1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립도서관 3곳 ‘온라인 겨울독서교실’ 운영

내년 1월18일~28일, 초등생 대상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18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무등도서관은 ‘우리 함께 생각해요!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1월18일부터 25일까지 2기로 나눠 초등학교 4~6학년 기수별 7명을 모집한다. 교육 참여 어린이들은 아동인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주제 도서를 읽은 뒤 생각 나누기, 게임,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자

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직도서관은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5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미세먼지 좋은, 푸른 하늘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 ▲환경 선언문과 종이책자 만들기 ▲환경 유시시(UCC) 기획 및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수도서관에서는 1월27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못 말리는 카멜레온’, ‘글자를 품은 그림’의 저자 윤미경 작가와 함께 동시와 동화를 감상하고 동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 토론한다. 겨울독서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citylib.gwangju.k)의 ‘문화행사’란이나 도서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K-POP 스타의 거리 조성 현장 찾은 부시장 조인철(맨 앞쪽)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옛 학생회관 뒷골목에 조성된 K-POP 스타의 거리'를 방문해 관공관객츠 설치 시설물 등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상생협의회 출범 첫 회의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24일 광주 빛그린 산단 사무실에서 노사 상생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회사 대표로 GGM 박광태 대표이사·박광식 부사장·박주성 상생안전실장, 근로자 대표로는 품질관리부 최성락 대리·시설관리부 임현진 대리·도장부 최대한 대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공장 건설·설비 설치

현황, 직원 채용 계획, 경영 등을 설명하고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사용자 1명·근로자 3명·상생협력팀 2명으로 실무위원회를, 사용자 1명·근로자 2명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상생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노사 상생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노사 협의로 풀

어 분규나 파업이 없는 노사 문화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대표로 나선 최성락 대리는 “근로 여건이나 복지 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참여 주체인 GGM·광주시·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맺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 하기 좋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협약’에 따라 구성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건축물·시가지 등 360VR 서비스 제공

시, 도시경관기록 시스템 운영

광주시는 27일 “광주시 도시경관기록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 도시경관기록 시스템은 2019년 11월부터 도시경관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11월 모바일과 연동된 홈페이지(landscape.gwangju.go.kr)를 미리 오픈했다.

도심지 내 주거지개발사업과 도시외곽 산업단지 확장 등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짧은 시간에 광주 도시경관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의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기록할 수 있는 도시경관기록 시스템

을 구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360VR(Virtual Reality) 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우스 등으로 무단산과 영산강, 황룡강 등 자연경관을 비롯한 문화재·학교·주요 건축물·시가지 등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원하는 각도에서 보고 공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이 도시경관기록 시스템을 도시정책을 찾고 도시 이미지를 정착하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스템이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관내지점 ● 서대동점 ● 문흥본점 ● 문흥본점 사무소 ● 상곡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	------------------------------------	------------------------------------	------------------------------------	------------------------------------	------------------------------------	------------------------------------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